

스트레스로 인한

바이러스성 감염이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유 일 응

무지개사료 병리연구실

닭의 바이러스성 감염은 닭에서 흔히 일어나는 질병 중의 하나는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본질병의 전형적인 발생 예가 아직 검색되지 않았으나 외국의 대군사육계군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내에도 최근 대군사육화하면서 우려가 되는 질병으로 그중 스트레스에 의한 감염이 때때로 상당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기도 하며 산란율과 폐

사율에서 경제적인 손상을 미치게하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이 가중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양계장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닭 바이러스성 감염의 발생은 1965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 질병의 증상은 감염과 캄필로 박터증(Campylobacter jejuni infec-

tion)과 어떤 관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캄필로 박터 제주니(C. jejuni)에 의한 질병 발생 양태와 매우 유사하다. 닭의 바이러스성 감염은 폐사율이 10% 이상이며, 체중손실, 무기력 및 비늘이 일어나는 위축된 벼슬 등이 나타났으나 난각이나 계란의 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난 생산은 저하된다(표1).

표1. 닭의 바이러스성 간염에 감염된 계군(112005)의 생산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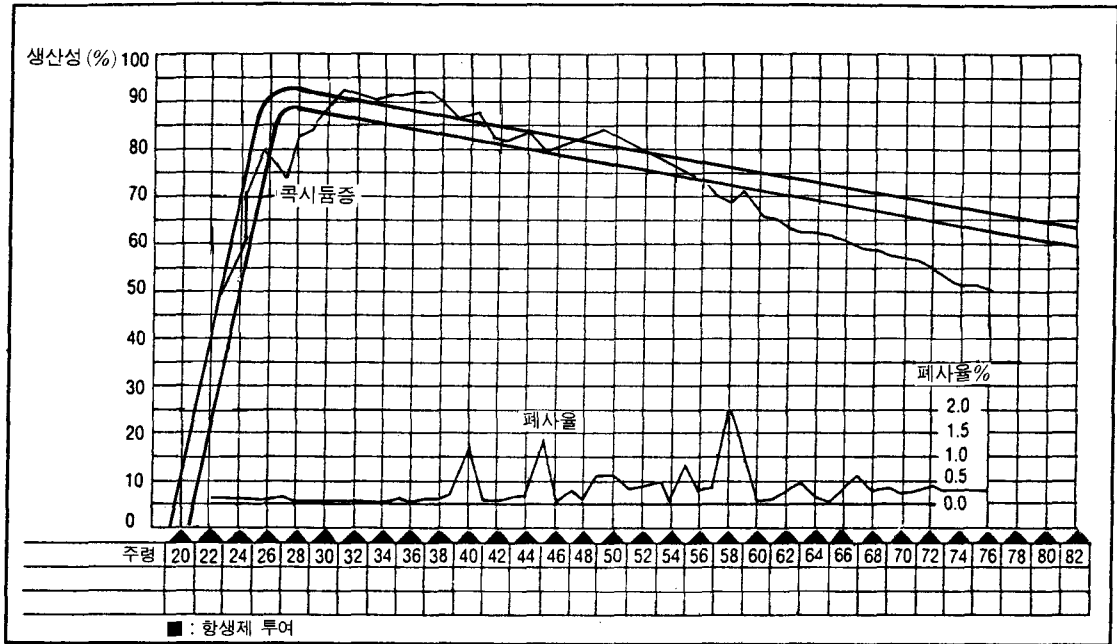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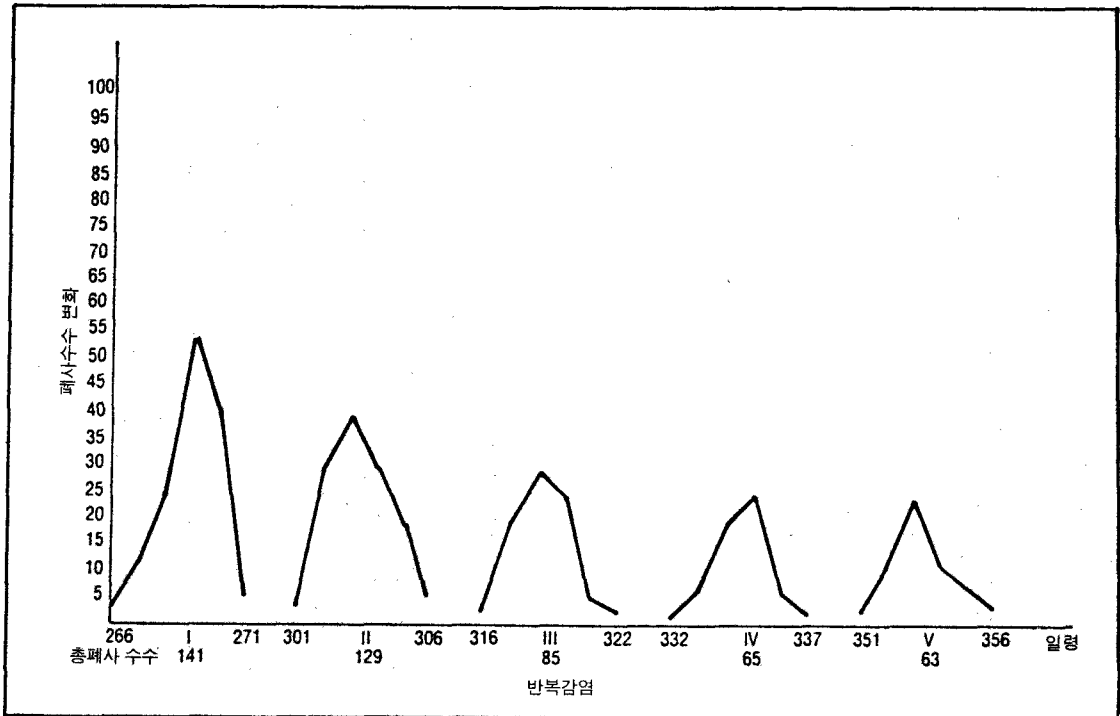


표2. 바이러스성 간염에 감염된 횟수에 따른 폐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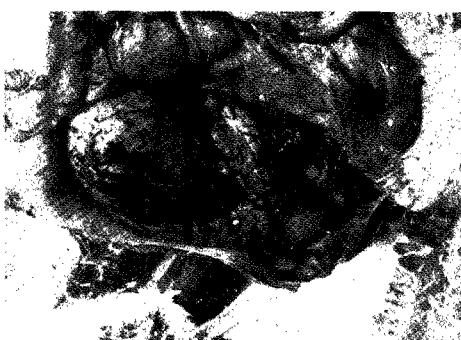
1. 회백색의 위축된 벼슬



2. 목수종과 심낭수종



3. 간장비대



4. 수란관의 심한 충출혈

질병의 경과를 보면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이며 효과가 있는 약제를 계속 투여하면 억제되나 질병인자가 반복적으로 감염되어 발생한다. 뚜렷한 육안적 병변을 보인 닭들에 대해 사후부검을 실시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증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2, 3, 4).

1. 벼슬이 희거나 회색으로 탈색되며 위축된다.

2. 심낭염과 복수가 차있

다.

3. 간종대 및 탄력성이 약하며 탈색되어 있고 회색 또는 노란색 피사 반점이 간 실질과 표면에 넓게 흩어져 있다.

4. 자궁내 난각 형성은 정상적이고 완전한데 장막내 심한 장출혈이 보였다. 이런 병변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크다.

5. 폐사된 닭의 난소는 충분히 활력이 있으나 난포는

심한 충혈을 보였다. 이러한 증상을 토대로 병력, 질병의 지속기간, 반복적인 감염 상태, 임상증상, 육안병변, 생체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현미경 검사, 그리고 원인체 분리 동정법을 거쳐 이 질병을 진단하게 된다. 현재까지 CTC, SM 등 일부 항생제 몇가지 약제가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

사용결과 대체로 효과를 잘 나타내며 폐사율이 0%까지 줄어 들었으나 약제

사용후 얼마간 지나면 반복 감염에 의해 폐사가 재발되는 특성을 보였다(표 2). 약값은 비싼편이지만 15% 이상의 폐사율을 보일 경우 이 폐사율을 줄이고 멈출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약제 사용은 필요하다.

오레오 마이신(CTC)을 사료내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 매쉬 사료에 톤당 10kg 수준으로 1일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매달 5일씩 톤당 2kg 수준으로 첨가하면 폐사율과 난 생산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계군 상태를 양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예방 및 대책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런 질병 때문에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보면서 이 질병을 컨트롤 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 질병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

2. 소독등 환경관리 철저를 통해 감염 농장으로부터 비감염 농장으로의 기계적 감염을 차단하자.

3. 가축 및 야생동물이 계사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4.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 하자.

※스트레스 요인 : 과밀사육
영양불균형 또는 결핍,
대장균증, 마이코플라즈마
증, 콕시듐증 등

5. 일단 감염된 계사에서 는 에너지 부족, 밀사 등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감염을 줄이자.

6. 만약 계군중 1/4이상이 이 병에 감염되어 증상을 보일 경우 그 계군은 빼내는 것이 좋으며 재 사육시에도 소독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기 사항을 준수하며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한다.

7. 일단 발병이 되었거나 감염경력이 있는 계사에는 예방적 투약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적 투약은 상기 질병을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캄필로 박터증, 비브리오, 대장균, 장염 등 기회주의적 세균 감염의 컨트롤과 계군내에 존재할 수 있는 여타 질병인자를 억제하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계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자